

2009년 초등학교 6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 어

() 초등학교 6학년 () 반 () 번 이름 ()

- ※ 문제지 6면에 30개의 문항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오.
- ※ 문제지에 학교명, 반, 번호, 이름을 정확히 쓰시오.
- ※ () 안에 답을 명확히 쓰시오.

1. 토론할 때의 규칙을 지켜서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사회자 : 지금부터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을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편의 이은선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선 : 저는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집니다.
박효민 :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책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의 잘못된 자세가 눈을 나빠지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자 : 반대편의 한경수 학생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경수 : 예, 저는 컴퓨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인터넷도 결국 컴퓨터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컴퓨터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컴퓨터 게임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김윤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재 : 예? 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죠?

- | | |
|------------|------------|
| ① 이은선, 한경수 | ② 박효민, 김윤재 |
| ③ 이은선, 박효민 | ④ 한경수, 김윤재 |

2. 다음의 악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까? ()

- 줄을 이용해 만든 악기 - 바이올린
- 가죽을 이용해 만든 악기 - 북
- 쇠붙이를 이용해 만든 악기 - 징
-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악기 - 단소

- | | |
|-----------|-----------|
| ① 사용된 재료 | ② 사용하는 민족 |
| ③ 사용하는 목적 | ④ 사용하는 장소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자기 벼랑 끝에 선
사람은

벼랑이 무섭다.

그러나 그 벼랑을 타고
기어 올라온 사람에게는

벼랑이 무섭지 않다.



3. 위 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내 경험과 관련지으며 읽는다.
- ②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는다.
- ③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는다.
- ④ 글 속에 담긴 숨은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다.

4. 위 글에서 ‘벼랑’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 | | |
|------------|-------------|
| ① 희망찬 내일 | ② 잘못된 습관 |
| ③ 어렸을 때의 일 | ④ 힘들고 어려운 일 |

5. 위 글이 주는 교훈을 가장 잘 나타낸 속담은 어느 것 입니까? ()

- ①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 ②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 ③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6. (㉠) 안에 들어갈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대감 : 부인, 내가 아끼던 도자기 한 점은 어디 갔소?
마님 : (머뭇거리다가) 제가 잘못해서 그만 깨뜨렸
습니다.
대감 : (기절할 듯이 놀라며) 아, 아니, 지금 뭐라고
했소?
할멈 : (얼른 무릎을 꿇으며) 대감마님,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감 : (화를 버럭 내며) 뭐, 무엇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

이 때, 할멈이 갑자기 또 다른 도자기를 던져 깨트렸다.
대감 : (㉠) 아, 아니, 이 할멈이.....

- ① 귀에 대고 속삭이며
- ② 눈물을 줄줄 흘리며
- ③ 매우 놀라 주저앉으며
- ④ 크게 소리 내어 웃으며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한 일꾼, 부지런한 머슴이 되기 위하여
저 김다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멋진 우리 반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이좋은 반, 서로서로 도와주는 반을 만들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 보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의 고
민 들어 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칭찬하는 시
간 갖기 등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설레는
군요.
둘째, 신나는 반, 웃음이 넘치는 반을 만들겠습
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주변에는 항상 웃
음이 넘쳐 납니다. 웃음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우리 반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즐거운 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항상 궁리하는 저 김다슬에게 당선
의 기쁨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
니까? ()

- ① 친구들의 고민 ② 신나는 우리 반
- ③ 사이좋은 우리 반 ④ 제가 반장이 된다면

8. 다슬이가 사이좋은 반, 서로 도와주는 반을
만들기 위하여 해 보고 싶다고 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 ① 서로 도와주기 — 늘 웃는 반이 되도록 노력하기
- ② 즐거운 오락 시간 갖기 — 친구의 고민 들어 주기
- ③ 친구의 고민 들어주기 — 친구 칭찬하는 시간 갖기
- ④ 친구 칭찬하는 시간 갖기 — 건강을 위해 즐거운 반 만들기

9. 두 학생이 늦달이 아저씨에 대한 글을 읽고
아저씨의 성격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입니다. 생
각이 서로 다른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늦달이 아저씨는 다른 나라 사람이지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키는 작고 깡말랐습니다. 체격만
보면 동작이 빠를 것 같은데, 실제 행동은
굼뜨기 짝이 없습니다. 자전거 발걸이를 천천히
밟으면서 입으로는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며
배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배달이 늦었어요?”

하고 누군가 말하면, 하얀 이를 드러내 놓고
씩 웃습니다. 원래 이름이 ‘만달리’였는데,
배달을 늦게 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 동네
에서는 ‘늦달이’로 불리게 되었지요.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번개에게 음식 배달을 시킵
니다. 중국음식은 면이 중요한데, 늦달이
아저씨에게 배달을 시켰다간 자칫 면발이
불어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배달 횟수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니, 아마 늦달이 아저
씨는 번개의 반도 훨씬 못 되는 월급을 받
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꼭
늦달이 아저씨에게 음식 배달을 시키지
요.



- ① 경험이 다르기 때문
- ②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
- ③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
- ④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께서는 뒤뜰로 나가셨어요. 우리들도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 나갔어요. 아버지께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보, 내가 된장국을 끓였는데 맛이 좀 이상해. 당신이 간 좀 봐 주구려. 우리들이 협상안도 가져왔는데.”

“협상안이 있으면 적어서 이리 올려 보내세요.”

“그러지 말고 내려와서 이야기합시다. 점심도 안 먹어서 배고플 텐데.”

“그럼 거기서 말해 보세요.”

“그렇시다. 첫째, 나는 나 스스로 출근 준비를 한다. 둘째…….”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쪽 읊으셨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거 괜찮은 조건이군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약속 꼭 지킬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

10. 위 글의 앞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아이들은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하였다.
- ② 어머니는 힘든 집안일을 거의 혼자 하였다.
- ③ 늘 바쁜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살림을 하였다.
- ④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나가기로 하였다.

11. 밑줄 친 문장을 원고지에 바르게 써 보시오.

12. 밑줄 친 낱말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음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해돋이 [해도지]

- ① 갈이 가자.
- ② 낮이 익다.
- ③ 웃이 단정하다.
- ④ 꽃이 아름답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금님께서는 지금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라는 이미 근본부터 망해 가고, 하늘 또한 임금님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임금님을 떠났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사나운 폭우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들판의 썩어 버린 고목. 우리나라가 이런 나무 꼴이 된 지 오래입니다.

벼슬이 낮은 사람은 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고,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은 패거리를 만들어 싸움을 일삼으면서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까닭이 없습니다.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께서는 생각이 깊은 분이지만, 선왕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한 여인에 불과하시며, 깊은 궁궐 속에서 정치를 잘못 이끌고 계십니다.

원하옵건대, 하룻밤 사이에 깜짝 놀라 새 사람이 되듯 깨달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학문에 힘써 덕을 밝히시고, 백성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십시오. 착함과 덕을 펴는 정치를 하면 흠어진 마음도 다시 임금님 곁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13. 위의 상소문을 쓴 사람이 임금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저에게 좋은 벼슬을 주십시오.
- ②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해 주십시오.
- ③ 지금처럼 나라의 힘을 길러주십시오.
- ④ 생각이 깊은 대비에게 정치를 맡겨 주십시오.

14. 상소문을 쓴 사람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생각이 깊지 않고 경솔하다.
- ② 용기가 있고 나라를 사랑한다.
- ③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 ④ 진실하지만 재물에 관심이 많다.

15. 다음 중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에 알맞은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기차가 움직인다.
- ② 누나가 뛰어온다.
- ③ 장미꽃은 아름답다.
- ④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16. (가)~(라) 중 의견을 중심으로 쓴 글은 어느 것입니까?
..... ()

- (가) 독도 해역은 수심이 얕고 바닥에 깔린 수많은 암석이 좋은 서식지를 이루고 있는데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어 다양한 어류가 모여든다.
- (나) 이들이 목숨 걸며 독도를 지킨 3년 8개월 동안의 노고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찬사를 바쳐도 부족할 것이다.
- (다) 일본의 독도 침범이 잦아, 국회는 1953년 7월 독도를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경비대를 상주하도록 하였으며, 1954년 8월 15일부터 독도 등대를 점등하고 여러 나라에 알렸다.
- (라) 이들은 독도에서 갖은 고생을 했다. 의약품도 부족했고 식수 부족으로 빗물을 받아 마시며 살았고, 보급품이 떨어져 며칠씩 굶는 것이 다 만사였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7. 다음과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김현주를 추천합니다

제가 봉사상 후보로 현주를 추천하는 이유는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친구가 있으면 책가방을 들어 주거나 청소를 대신 해 줍니다. 그리고 1, 2학년 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현주를 봉사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추천하는 사람: 임지현

- ① 실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쓴다.
② 추천할 만한 행동을 추측하여 쓴다.
③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쓴다.
④ 추천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게 쓴다.

[18~19]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쓰면 쓸수록 정드는 오래된 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른 소나무 빛
닭을수록 빛을 내는 고운 우리말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 빛	“용서하세요.” 라는 말은 부끄러워 스러지는 검허한 반딧불 빛
나를 내어 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나를 비우려고 내가 작아지는 빛.

18. 위 시의 글감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빛 ② 사랑
③ 우리말 ④ 우리글

19. 위와 같은 글의 특징을 가장 알맞게 말한 사람은 누구
입니까? ()

- ① 창형 :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② 유경 : 등장인물, 해설, 지문이 있어.
③ 근영 : 비유적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아.
④ 정환 : 되풀이되는 말이 많아서 리듬감이 있어.

20. 밑줄 친 ‘정자나무’를 빗대어 표현한 것을 찾아 쓰시오.

매미가 극성을 부릴 때쯤이면, 해님은 동아줄보다
질기고 따가운 명주실을 풀어 우리들 작은 몸뚱이를
친친 동여매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팔랑개비처럼 신발짝을 돌리며
동구 밖으로 뽀박질을 했다.

그러면 거기, 옛 이야기 속의 장사처럼 우람한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고 서 있던 정자나무.

()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꿈꾸어 왔던 대로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어린 시절처럼 용돈이 생기면 서점으로 달려간다.
-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났다. 바로 이미경 선생님이시다.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다.
- (다) 앞으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화를 쓰는 것이다.
- (라) 나는 1970년 9월에 전주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릴 때에는 주로 할머니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21. 위 글을 일이 일어난 차례에 맞게 배열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라) - (나) - (가) - (다)
 ② (라) - (가) - (나) - (다)
 ③ (라) - (다) - (나) - (가)
 ④ (라) - (나) - (다) - (가)

22. 밑줄 친 ‘시간을 표현하는 말’ 중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 ()

23. ()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알맞게 적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소나무 장작불의 불뚝이 튼다. 형은 저렇게 꼼짝 않고 가마를 지키고 앉아 밤을 새울 것입니다. 형이야 도자기를 직접 빚은 사람이니 정성을 들여야 마땅하지만, 허드렛일로 고달픈 아우는 눈을 붙여도 될 성싶었습니다. 아우는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발에 쥐가 나 한동안 엉겨주춤 서 있던 아우가 콧등에 침을 찍어 바르며 형의 눈치를 봅니다.

‘엉덩이가 배기고 오금이 저릴 텐데.....’

아우는 () 움막으로 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꺼풀을 내리 누르며 쏟아지던 잠은 다 어디로 가고 눈만 () 빛납니다.

- ① 말뚱말뚱, 성큼성큼, 타닥타닥
 ② 말뚱말뚱, 타닥타닥, 성큼성큼
 ③ 타닥타닥, 성큼성큼, 말뚱말뚱
 ④ 타닥타닥, 말뚱말뚱, 성큼성큼

24. ‘방아 노래’에 나타난 지은이의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방아 노래

덜커덩 방아나 짙어, 히애.
 거친 밥이나 지어, 히애.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웁고, 히야해.
 남기시면 내 먹으리, 히야해, 히야해.

- 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②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 마음
 ③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④ 어려운 살림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25. (가)를 (나)와 같이 표현할 때 좋은 점은 어느 것입니까? ()

(가)

깨끗한 바다를 보고 싶어요.

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동생과 함께 물에 들어가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 때문에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이렇게까지 오염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나)



- 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의견을 자세하게 쓸 수 있다.
 ④ 순간적으로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다.

